

“노동력 대가 못받는 유일한 집단”

가정주부노동자 자리매김 위한 토론 활발

‘모든 여성들이 경제적 보수가 주어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무보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여성학자·사회학자들이 ‘주부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 작업에 나섰다.

매년 여성문제관계 무크지를 발간해온 ‘또하나의 문화’는 지난 24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주부’를 주제로 본격적인 논쟁의 장을 열었다.

발표에 나선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집단인 주부를 그동안 무조건 취업만이 대책이라고 보아온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면서 “주부가 먼저 자신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작업에 소모임별로 나서는

것이 새로운 주부상 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상명여대 여성학 강사 박혜란 씨는 “주부들이 자신의 일을 주위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인가를 분석해 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가능한 다른 사회참여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 참석한 주부들

발, 구체적인 경제적 보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중산층 주부들은 전업주부 역할에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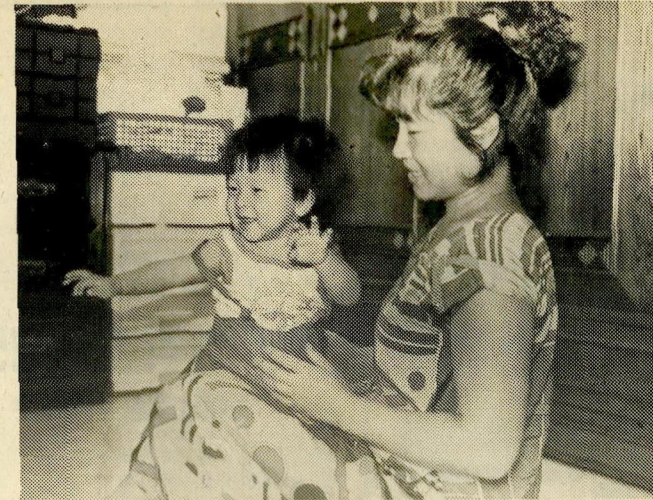
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애실 교수는 “주부라고 해서 몽땅그러 볼 수는 없고 현재 빈민층에서는 스스로 주부로 있고 싶어도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할수없이 취업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맡은 ‘노동자’ 주장 집안 일 경제적 가치로 환산작업 관심 모아

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의 반은 나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학자들이 주부를 노동자로 본다고 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주부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주부들이 전부 취업여성을 부러워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않다”고 반

어나고 있다”면서 “계층별로 나눠 주부문제에 접근해야 주부들의 거부반응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산업사회 진전과 취업여성의 증가로 ‘전업주부’라는직종이 사라질지라도 현재의 ‘주부문제’를 풀기 위



주부를 ‘돌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보아야만 주부의 역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권리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는 데 의견을 모았다.

89년 한국여성민우회 주부분과가 결성, 교육·소비자·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부운동을 시작하고 학계에서 주부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부쩍 늘어남과 동시에 지난해 말 개정된 가족법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가사노동의 환산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여성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기자〉